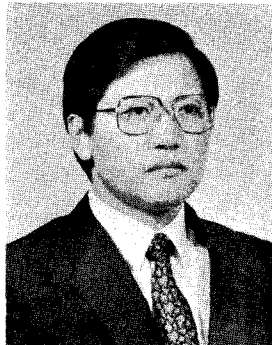


84년은 선진양계산업의 출발점 되어야

양계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힘과 용기가 필요하며 양계산업의 지도자들이 한자리를 모아 격의없이 흥금을 털어놓고 숙의하고 이해를 떠나 사심없이 뭉쳐야 밝은 미래를 앞당길 수 있어

허 신 행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본회 자문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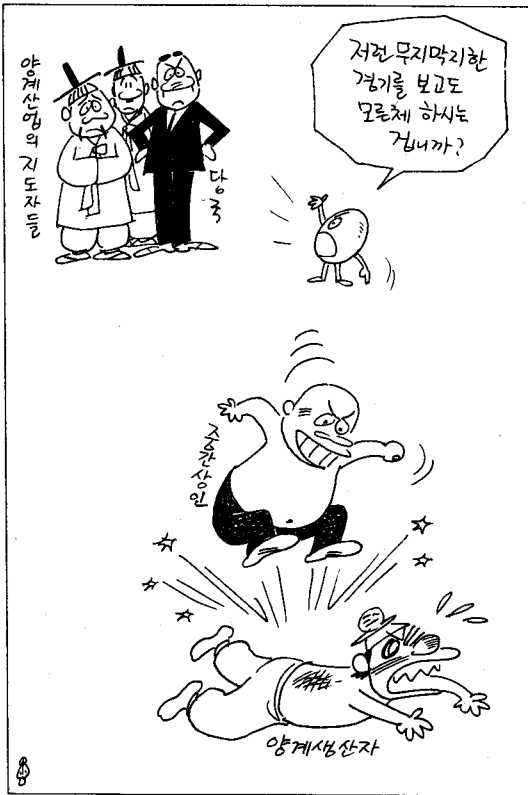


양계산업이 위험수위에 도달하고 있으나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것 같다. 대부분의 양계인들은 이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좋을지조차 잘 모르는 허탈의 상태에 놓여 있다. 몇 안되는 양계산업의 지도자들도 방향감각을 잃은듯 갈길이 멀고 험한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왜 그런가? 그리고 무엇부터 시정해야 될 것인가.

우리나라 양계산업은 1979년부터 줄곧 어려움을 겪어 오고 있다. 육계와 계란의 실질가격이 계속해서 떨어져 온 것이다. 사료값은 오르고 다른 투입요소의 가격도 상승하고 있는데 반해서, 육계와 계란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된다면 문제는 심각하지 않은가. 더우기 사료업체가 생산자들로부터 2개월 정도 밀려 있는 외상대금을 모두 회수한다니 설상가상으로 어려움은 더할것 같고 생산기반을 늘리는 사람보다 양계업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앞선다.

파잉생산으로 돼지고기의 가격마저 떨어지고 있어서 육계가격은 생체 kg당 1,000원 선을 좀처럼 웃돌 것 같지도 않다. 더우기 사료값은 오르고 있는데도 바나나 수입이 이루어지면 계란 가격마저 보합세가 되지 않겠는가 하고 모두들 걱정이 태산 같다. 그런데다 서울시 당국이 육계 유통의 구조적인 개선이 아니라 단속위주로 하여 간혹 육계유통경로를 송두리채 뒤흔들어 놓는 바람에 농민의 희생이 커진다. 중간상인은 온갖 기회를 다 이용해서 레슬링선수처럼 내려치고 올려쳐 농민들은 그저 어지럽기만 하다.

그렇다고 가만히 앉아서 좌절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은가. 어려운 역경이 닥쳐 올수록 그것을 극복해 낼 수 있는 힘과 용기를 길러야 한다. 그리고 문제를 하나 하나 정리하고 해결하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양계산업의 지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앉



아 격의 없이 흥금을 털어 놓고 속의하고, 이해 관계를 떠나 사심없이 뭉쳐야 한다.

필자는 5년전부터 양계산업의 지도자들이 뭉쳐야 된다고 역설하여 왔다. 그러나 아직 그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아직도 더 많은 고통을 참고 이겨내야 한단 말인가.

정부당국도 양계유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 하겠다는 정책의지를 확고하게 세우고, 업계와 함께 지혜를 짜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아직 축산물 유통이 전근대적이고, 또 정부의 역할과 개입의 폭이 큰 나라에서는 정부가 앞장서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 또한 민간인 대표자들 스스로가 앞장서서 모든 문제를 해결 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되어 있지도 않은 것 같다.

86년과 88년의 큰 두 국제행사를 눈앞에 두고 모든 분야가 어른스러운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 이때 양계업계도 84년을 각성의 해로 삼고 의연하게 일어서보지 않으려나. 그래서 84년 선진 양계산업의 출발점이 되도록 하여 밝은 미래를 앞당겨 보도록 하자.

-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
- 준법사상 고취하여 한국민주주의 이룩하자
- 질서는 징검다리 건너뛰면 사고난다
- 슬그머니 버린 휴지 슬그머니 버린 양심
- 백사람을 괴롭힌다 한사람의 질서위반

— 대한양계협회 정화추진위원회 —